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특화된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을 개척한 해외 벤처기업의 성공사례를 소개한다.

# 21세기 영국판 ‘봉이 김선달’

## 소셜 벤처 사업모델로 대박 터뜨린 ‘퓨처포레스트’

글 / 김민주 (리드앤리더 컨설팅 대표, [www.emars.co.kr](http://www.emars.co.kr))

### 기부를 받아 나무를 대신 심어주는 퓨처포레스트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갑자기 커다란 전환점을 맞는 경우가 있다. 특히 어떤 큰 사고로 인해 몸을 다치면 인생관이 크게 바뀐다. 영국에 살던 댄 모렐(Dan Morrell)이 바로 그런 경우다. 댄 모렐은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나이트클럽을 운영하고 비디오게임을 수입하고 패션소매업 그리고 광고중개업 등 여러 직업을 전전하고 있었다.

1986년 어느 날 그는 음악 하는 친구들과 함께 늦은 시간에 나이트클럽에서 나와 집으로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만다. 그리고 그 후유증으로 3년이나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살아온 그는 앞으로 살아있는 동안 의미 있는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물론 생존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돈을 벌어야 했다. 그러던 그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튀어나왔다. 사람들로부터 소액의 돈을 기부 받아 나무를 대신 심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다. 사람들은 지구환경을 위해 나무가 많으면 좋다는 것은 알지만 실제로는 나무 심는 방법도 잘 모르고 나무를 심을 시간적, 정신적 여유도 가지지 못했다. 토양에 맞지 않는 나무를 심었다가 괜히 나무를 죽이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댄 모렐은 사람들로부터 10달러를 기부 받아 나무를 심어주면 그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공기도 좋게 해주고 지구온난화 속도를 억제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어 사업으로서의 자부심도 생기고 환경 기업이라는 이미지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러한 목적을 위해 퓨처포레스트(Future Forests)라는 회사를 1997년 설립했다.

하지만 이러한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 설득하기란

쉽지 않았다. 댄 모렐은 자신이 만나는 사람마다 이런 취지를 말했지만 사람들은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기차를 타고 가다가 앞자리에 앉아있었던 사람에게 자신의 사업 아이디어를 말하여 5달러를 자신에게 기부해달라고 설득을 했다.

그 자리에서 아무런 응답을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앞자리의 그 사람은 영국에서 매우 큰 노조의 하나로 공공서비스 부문 노조인 유니슨(Unison)의 사무총장 로드니 비커스태프(Rodney Bickerstaffe)였다. 그는 기차에서 만났던 사람 이야기를 노조원들에게 하며 퓨처 포레스트를 지원해줄 것을 호소했다. 그 취지에 동감한 노조원들은 동참하여 댄 모렐에게 수표를 보내기 시작했다. 이것이 퓨처 포레스트가 받은 모금의 첫 시작이었다.

그 이후 개인 후원자는 속속 늘어나기 시작했고 기업 후원자도 늘어났다. 개인 후원자들로는 스틸라 매카트니, 핏삽보이즈, 조 스트러머 같은 유명한 가수들이 동참했고 노동자, 어린 학생, 주부 등 다양한 계층이 몰려왔다. 또 기업 후원자로는 광고대행사 제이 월터 톰슨, 자동차 회사 마쯔다 UK, 자동차 렌탈 회사 에이비스 유럽 등이 적극 합세했다.



## 좋은 아이디어가 성공을 만든다

사실 댄 모렐의 아이디어는 과학시간에 배운 단순한 광합성 이론을 벗어나지 못했다. 확실한 수치로는 증명하지 못한 채 자신이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막연히 나무를 심어야 한다고 떠들고 다녔던 것이다. 그러던 중 댄 모렐은 초대받은 어떤 포럼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산화탄소 전문가인 리처드 티퍼(Richard Tipper) 박사를 만나게 된다. 티퍼 박사는 몇 그루의 나무가 얼마만큼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고 자동차 한 대, 비행기 한 대가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배출하는지 정확한 수치를 가르쳐 주었다. 그래서 댄 모렐은 카본 뉴트럴(Carbon Neutral) 캠페인을 본격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퓨처 포레스트는 이런 식으로 알기 쉽게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다.

- 열 그루의 나무는 한 명의 미국인이 4달 동안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 아홉 그루의 나무는 한 가족이 카리브해에서 보낸 휴가 동안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상쇄해준다.
- 여덟 그루의 나무는 한 사람이 4년 동안 버린 쓰레기를 삼키는 효과를 준다.
- 일곱 그루의 나무는 뉴욕과 런던을 5번 비행하며 발생시킨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 여섯 그루의 나무는 한 사람이 평생 냉장고를 사용하며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 다섯 그루의 나무는 자동차 한 대가 일 년 동안 배출한 가스를 흡수한다.
- 네 그루의 나무는 세탁기 한 대가 6년 동안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중화시킨다.
- 세 그루의 나무는 3년 동안 기차 기어변속(10시간/주)으로 배출되는 오염을 흡수한다.
- 두 그루의 나무는 하루에 4잔씩 6년 동안 커피가 생산 배달되면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먹는다.
- 한 그루의 나무는 우간다 한 국민이 일 년 동안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중화시키기에 충분한 양이다.

그래서 퓨처 포레스트 회사는 자사를 카본 뉴트럴 컴퍼니(The Carbon Neutral Company : 탄소중립적 회사)라고 아예 포지셔닝하고 있다. 우리가 자선단체에 기부를 할 때 내심 불안하다. 그 자선단체가 과연 자신의 기부를 받아 제대로 사용하는 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기 때문이다. 그래서 퓨처 포레스트는 기부를 받으면 돈을 받았다는 인증서(Certificate)를 이메일로 기부자에게 보내 준다.

그리고 기부자의 돈으로 어떤 지역에 어떤 나무를 심었는지를 가르쳐준다. 그래서 기부자는 나무가 심겨진 곳에 가서 나무에 물을 줄 수도 있다. 이처럼 가까운 곳에 나무가 있는 사람들은 수시로 나무가 잘 자라나 점검을 하고, 멀리 나무를 심은 사람들은 그 나무가 잘 자라고 있다는 소식을 퓨처 포레스트로부터 주기적으로 듣는다. 회사 웹사이트에 가면 어디에 자신의 나무가 심어졌는지 지도로 나와 있다.

퓨처 포레스트는 이제 영국에만 나무를 심는 것은 아니다. 아마존을 비롯해 세계 많은 곳에 나무를 심는다. 인도, 멕시코, 중국에도 심는다. 특히 도시화로 숲이 점점 사라지는 도시에 나무를 많이 심는다. 댄 모렐은 이 사업이 10년이나 20년에 열매를 맺는 그런 사업이 아님을 잘 안다.

처음에는 황당해 보였던 이 사업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 지사가 생기고, 후원자들이 많이 늘어,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이 사업이 계속 되기를 바란다. 퓨처 포레스트 회사는 이제 '카본 뉴트럴'로 회사 이름을 바꾸었다.

대동강 물을 돈 받고 팔았던 봉이 김선달처럼 아무도 사업거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생각을 댄 모렐은 사업으로 연결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는 21세기에 사업을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자본이 없어도 아이디어만 좋으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바로 소셜 벤처(Social Venture)이다.

